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
		배포일자	2023년 3월 20일(월) 총 2매	
담당 부서	복지정책과	담당자	• 자활지원팀장 박 진 ☎440-1541 • 담당자 김숙경 ☎440-1542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·LH, 지하상가 공실에 자활사업장 개소

- 만수주공 7단지 지하상가에 송이팍랜드 커뮤니티센터 자활사업장 문 열어 -
- 자활일자리 창출·교육, 입주민 버섯재배 체험 등에 활용, 첫 버섯 수확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3월 20일 남동구 만수주공 7단지 아파트 지하상가에 마련된 자활사업장 ‘송이팍랜드 커뮤니티센터’ 꿈이든 4호점이 개소했다고 밝혔다.

‘송이팍랜드 커뮤니티센터’는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인천 지역본부(본부장 박봉규)가 지난해 업무협약 및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고, 아파트의 지하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만든 자활사업장이다.

남동구 만수주공 7단지 아파트 지하상가의 공실 248.12㎡를 임대해 사업장으로 꾸몄으며,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부평지역자활센터가 맡아 운영하게 된다. 1년 동안 무상 사용한 후 기본임대료의 30%만 부담하고 사용하게 된다.

이곳은 저소득층의 자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버섯재배

체험, 자활 참여주민 교육프로그램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.

이날 개소식 행사에서는 단지 내 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이곳에서 재배한 버섯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, 수확한 버섯은 단지 내 무료 급식소에 전달할 예정이다.

한편, 자활사업장 ‘꿈이든’은 ‘자활 성공의 꿈이 들어있는 곳’이란 의미로 운영되는 곳으로, 이날 개소한 송이팍랜드 커뮤니티센터에 앞서 착한신발, 송이팍랜드, 꿈이든 세차장 등 3곳에 개소해 저소득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.

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“이번에 개소한 송이팍랜드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공공기관과 연계된 양질의 자활 일자리 발굴이 늘어나도록 지원할 것”이라며, “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이 지역사회와 연대해 더욱 활성화되고,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